

보도시점 2024. 10. 21.(월) 14:00 (2024. 10. 22.(화) 조간)

## 최초로 「전지 제조업 안전가이드」 마련, (주)비츠로셀의 우수사례 중심으로 담아

- 김문수 장관, 기업의 우수사례 확산이 중대재해 감축의 해답, 안전경영은 기업의 가장 ‘똑똑한 투자’라는 점 강조
- 대피로·비상구 개선, 격벽 설치 등 화재확산 방지 비용 ‘최대 1억 원’ 지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 21일(월) 오후 2시, 충남 당진의 리튬 일차전지 제조업체 (주)비츠로셀을 방문하여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해답은 기업의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전지공장 화재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번에 방문한 (주)비츠로셀(대표 장승국)은 유사한 화재 사고에 대한 대응에 따라 결과가 갈린 우수사례로 손꼽힌다. 장승국 (주)비츠로셀 대표는 간담회에서 “인명 피해를 막는 것을 안전관리의 영(0)순위로 삼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주)비츠로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안전관리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근로자들의 피난이 쉽도록 모든 작업장을 단층으로 건립하고, 피난에 장애가 없도록 형광 피난 유도선 설치하는 한편, 전지공장의 특성상 화재 시 초기 진화가 어려운 점을 대비하여 초동 대응 없이 즉시 대피할 구역을 설정했다. 피해 확산 억제를 위해 건물 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24시간 상시 감시 체계도 운영 중이다.

### ※ (주)비츠로셀의 안전관리 우수사례 주요내용

구분	As Is	To Be
인명 피해 방지	공정 흐름대로 작업장 건립	모든 작업장 <b>분리 및 단층 건립</b>
	피난 지원 시설 부족	<b>형광 피난 유도선</b> 및 <b>비상조명</b> 설치
	진화와 대피 사이에 혼란	<b>즉시 대피</b> 구역 설정
피해 확산 억제	생산성 우선의 건물배치	안전 우선의 건물 간 <b>안전거리</b> 확보
	화재 감시 체계 미비	<b>24시간 통합감시</b> 체계 운영

정부는 (주)비츠로셀의 우수사례를 토대로 「전지 제조·취급업 화재·폭발 사고 대비 안전가이드」를 최초로 마련했다. 이는 전지 제조 기업의 안전 관리 우수사례를 지침화한 것으로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가스검지·경보 장치와 격벽 설치, 비상대응체계 마련 등에 중소기업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 안전가이드 주요 내용 >**

		
<p><b>위험요인 관리</b> (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 설치)</p>	<p><b>확산 방지 조치</b> (격벽 설치로 전지 분산 보관)</p>	<p><b>비상대응체계 및 훈련실시</b> (비상구 설치 및 소방훈련)</p>

안전가이드 마련과 함께, 화재방지 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2025년부터 (주)비츠로셀과 같이 대피로나 비상구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시각적 환경을 개선하거나,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격벽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김문수 장관은 “안전경영은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가장 똑똑한 투자”라면서, “중대재해 감축의 해답은 기업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확산시키는 것이며, 중소기업이 화재방지 조치를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현장 방문 개요  
2. 장관 인사말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책임자	과 장	배영일 (044-202-8901)
		담당자	사무관	이재화 (044-202-8914)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	책임자	과 장	박지혜 (044-202-8920)
			사무관	김양운 (044-202-8930)
		담당자	주무관	양혜련 (044-202-8925)



비츠로셀 장승국 대표님, 이정도 공장장님, 박노건 제조1실장님, 강주하 안전환경관리팀장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충남도 전형식 정무부지사님, 김영명 경제기획관님, 오성환 당진시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산업현장에서 매년 8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사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츠로셀은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선도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사고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①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분리된 내화 건물, ②격벽 설치,  
③인명 피해 방지를 위한 단층 건물 구조, ④각종 피난 장치 등  
전지 업체에 적용될 수 있는 많은 모범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비츠로셀의 사례를 충실하게 담아  
“전지 제조·취급업 화재·폭발사고 대비 안전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비츠로셀과 같은 모범사례를 도입하도록  
지원도 확대할 것입니다.

오늘 방문을 통해 비츠로셀의 경영철학과 안전을 보장하는  
사례들을 배우겠습니다.